

개 요

각 급 도서관의 참가신청자 18명과 우리협회 사무국 직원 4명은 1999년 10월 12일(화)부터 16일(토) 까지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제1회 일본 도서관 박람회」참관 연수여행을 하였다.

연수 첫날인 10월 12일(화)에는 일본 동경에 도착하여 호텔에 여장을 풀고 참가자들간에 서로 인사를 나눈 후 우리협회 曹元鎬 사무총장으로부터 연수일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있었다.

10월 13일(수)에는 일본도서관협회의 친절한 안내를 받으며 동경국제포럼 지하 2층 전시홀에서 열리고 있는 「제1회 도서관 박람회(The 1st Library Fair in Tokyo)」를 참관하였다.

『21세기의 도서관 - 네트워크와 도서관』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JCC Culture Corporation 주최 · 문부성 후원 · 일본도서관협회를 비롯한 9개 도서관계 단체들이 협찬하였으며, ‘정보관리시스템’ ‘운영 · 관리시스템’ ‘정보화시스템’ ‘서적 · 출판’의 4개 주제 분야로 나뉘어 58개 관련 업체들이 부스를 설치하였다.

관련 업체와 도서관계 단체들은 자료보존, 도서관 용품, 도서관 설계, 정보관리 프로그램, 서적 · 잡지 · CD-ROM, 마이크로필름, 점자도서 등에 관련한 다양한 제품과 기술을 선보이고 있었으며, 14개 기관에서는 전시와 더불어 세미나도 함께 개최하였다.

박람회 참관을 마친 우리 일행은 일본도서관협회의 신축 회관으로 이동하여 일본도서관협회를 견학한 후 동 회관 연수실에서 개최된 “제1회 한·일 도서관 세미나”에 참가하였다.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일본의 한글자료연구회(ハンゲル資料研究會)는 한국의 도서관에 관하

여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 일본 사서들의 모임으로, 30여명의 회원들이 우리 연수단 일행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林 昌夫(하야시 마사오)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는, 田辺 廣(타나베 히로시)회장과 우리협회 曹元鎬 사무총장의 인사말, 일본도서관협회 栗原 均(구리하라 히토시) 이사장의 축사에 이어 한글자료연구회 花房征夫(하나부사 유키오) 부회장(‘현대 한국 · 조선관계 일본어문학의 특징과 데이터베이스’)과 경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金泰承 교수(‘한·일 도서관협력의 필요성과 향후과제’)의 주제발표(발표내용은 본문 24-31쪽 참조)가 있었다.

일본도서관협회 大澤正雄(오오사와 마사오) 상무이사의 환영인사로 시작된 리셉션에서 양국 사서들은 환담을 하면서 서로의 우정을 나누었으며, 이번의 세미나가 양국 도서관의 상호협력을 위한 의미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국립국회도서관 宇治郷毅(우지고 쓰요시) 총무부장의 폐회사로 세미나를 마무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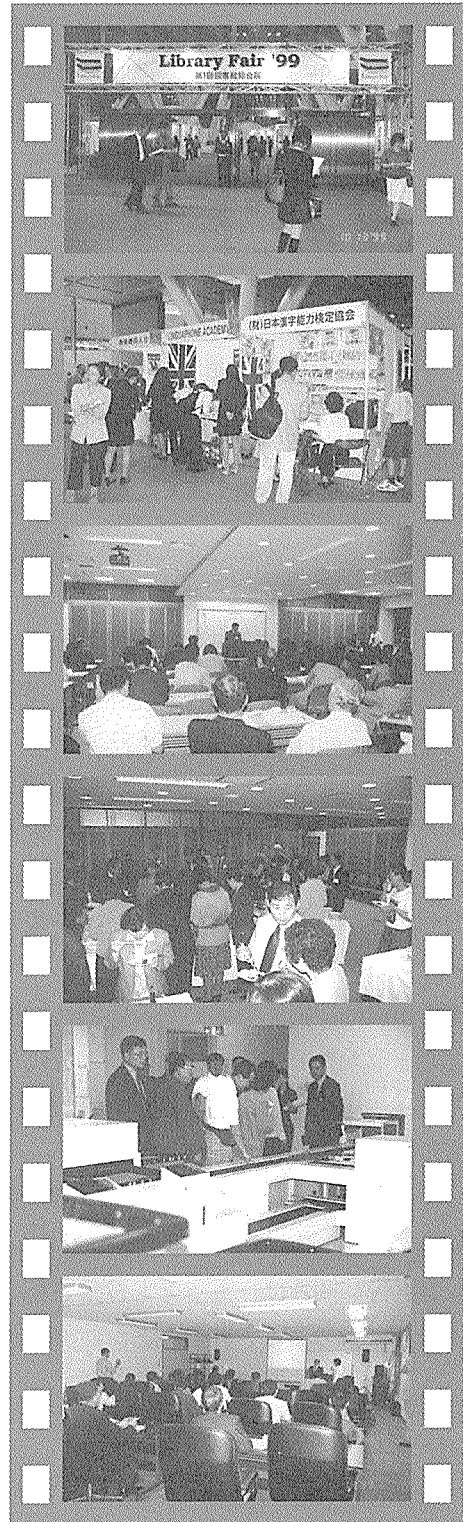
10월 14일(목) 오전에는 국립국회도서관의 전반적인 서비스 현황을 견학하였으며, 오후에 방문한 학술정보센터(NACSIS, National Center for Science Information Systems)에서는 연구주간인 内藤衛亮(나이토 에이스케) 교수를 비롯한 많은 스태프들로부터 NACSIS가 운영하고 있는 목록시스템(NACSIS-CAT), 도서관 상호대차 시스템(NACSIS-ILL), 전자 도서관 서비스(NACSIS-ELS), 온라인 저널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다. <기록:박경아>

▶ 참가자 명단(한국측)

- 원재희(태성대학 교수)
- 최후연(분진중학교 교장)
- 한철수(한국외국어대학도서관 사서장)
- 이재화(세종연구소사료연구팀 사서)
- 오양열(한국문화예술진흥원예술자료관 사서)
- 김무식(덕성여자대학교도서관 사서)
- 최용권(한국수출입은행도서관 사서)
- 김영순(대전광역시학생도서관 사서)
- 이상우(기술표준원기술도서관 관장)
- 신군수(기술표준원기술도서관 사서)
- 정애희(한양대학교사대부속여고 사서교사)
- 고희숙(한국국제협력단자료실 사서)
- 이상숙(경기도립중앙도서관 사서)
- 이옥경(한국개발연구원도서관 사서)
- 송찬기(조선대학교중앙도서관 열람과장)
- 송남섭(인양시립평촌도서관 관장)
- 박영춘((주)우미산업 이사)
- 심경((주)OROM정보 개발부장)
- 조원호(한국도서관협회 사무총장)
- 이용훈(한국도서관협회 기획부장)
- 유태형(한국도서관협회 직원)
- 박경아(한국도서관협회 직원)

▶ 참가자 명단(일본측)

- 岡本 昌巳
- 鈴木 裕子 (アジア經濟研究所圖書館)
- 二階 宏之 (アジア經濟研究所圖書館)
- 大倉 玉圭 (OKURA-SANGYO)
- 原田 美佳 (韓國文化院)
- 張朋美 (韓國文化院圖書館)
- 小栗 章 (國際文化フォーラム)
- 宇治 郷毅 (國立國會圖書館總務部長)
- 門 彬 (國立國會圖書館圖書館協力部國際協力課長)
- 富窪 高志 (國立國會圖書館專門資料部アジア資料課長)
- 網野 美美 (國立國會圖書館專門資料部アジア資料課)
- 石川 武敏 (國立國會圖書館專門資料部アジア資料課)
- 伊藤 淑子 (國立國會圖書館專門資料部アジア資料課)
- 大和田 孝志 (國立國會圖書館圖書館協力部國際協力課)
- 白井 京 (國立國會圖書館調査及び立法調査局調査資料課)
- 佐藤 善治 (中央大學圖書館)
- 曹貞烈 (朝鮮獎學會圖書館)
- 合田 晃一 (東京大學東洋文化研究所東洋學研究情報センター)
- 新居 弘生 (東京大學東洋文化研究所東洋學研究情報センター)
- 林 昌夫 (東京都立多摩圖書館)
- 吉田 昭子 (東京都立中央圖書館)
- 迫田けい子 (東京都立北谷圖書館)
- 花房 征夫 (東北アジア資料センター代表)
- 中島 優美子 (日韓文化交流基金圖書センター)
- 栗原 均 (日本圖書館協會理事長)
- 大澤 正雄 (日本圖書館協會常務理事・事業本部長)
- 井上 學 (日本圖書館協會映像事業部長)
- 坂口 笑美子 (一橋大學附屬圖書館)
- 眞藤 朝子 (一橋大學經濟研究所)
- 小野 亘 (一橋大學附屬圖書館)
- 小泉 徹 (日本圖書館協會國際交流委員長・立教大學武蔵野新座圖書館)



開會の挨拶

本日ここに、第一回日韓図書館セミナーを、日韓兩國の図書館協會の後援のもとに、開催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ハングル資料研究會を代表して、一言ご挨拶を申し上げます。

この研究會は、韓國語資料を取り扱う図書館員を中心にし研究會であります。しばらく前までは、日本の図書館で韓國語資料を扱うことは、そうたやすいこと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そこで直面する問題について、情報を交換しあいながら、研究と學習を續けてきたほわけです。

韓國図書館に關する基本文獻の翻譯なども行い、最近では、韓國の「図書館及び讀書振興法」の日本語譯を、日本図書館協會の雑誌『現代の図書館』に載せております。また、これまでも韓國の図書館人が來日された際には、韓國の図書館についてお話をうかがたり、懇談會を開いたり、交流を行ってきました。

こうするなか、昨年、日韓の図書館協會が正式に交流を開始することに合意しました。私たちがハングル資料研究會としましても、日本と韓國の図書館の發展と交流のためにすばらしいこととはと、評價、期待をしております。

今回、多數の韓國の図書館人が來日されたことも、こうした二つの図書館協會の相互の信頼と友情があつてはじめて可能であつたと思います。

そこで、私たちハングル資料研究會は、韓國から多くの図書館人がいらしゃるこの機會をとらえ、日韓の図書館協力を關するセミナーを開き、今後の課題を探るとともに、親しくお話を交わしてみたいと考えた次第です。

日本と韓國は、近くて遠い國といわれてきました。また、過去には兩國の間に不幸な時代がありました。私たち日本人は、このことを決して忘れてはなりません。しかし、このことを肝に銘じながらも、後ろばかりを見るのではなく、新しい豊かな關係を築い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ヨーロッパにおいて、二度にわたる大戦を経験した獨佛の兩國が、かくも親密な關係をもつて、EUの中核になること、誰が豫想したでしょうか。

もつとも近い國とは、もつとも親密でなければなりません。本日のこの集まりが、兩國の交流と協力に、前進の一步となることをのぞんで、開會のご挨拶にかえたいと思います。

1999年 10月 13日

資料研究會會長

富士大學教授 田辺 廣

感謝人事

只今, 이 時間, 우리들 韓國의 圖書館人 一行 20餘名은, 우리 나라의 圖書館에 關하여 特別한 關心과 愛情을 가지고 계시는 ハンゲル 資料研究會員을 비롯한 日本의 司書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아마도, 相對方에 對하여 서로 깊은 關心을 가지는 두 나라의 圖書館人들이 公式的으로, 그리고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함께 하게 된 것은, 오늘의 이 모임이 처음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 이처럼 뜻 있는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細心하게 周旋하여 주신 田邊廣 會長님 以下 ハンゲル資料研究會의 同志 여러분께 깊이 感謝드리며, 또한 훌륭하게 新築된 새 會館에 우리를 招待하여 주시고, 이 모임을 積極的으로 後援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日本圖書館總合展의 參觀等 우리 一行의 이 번 訪日 日程 全體에 關하여 友情어린 도움을 아끼지 않아 주신 日本圖書館協會의 栗原 均 理事長님과 任職員 여러분께도 衷心으로 感謝를 드리는 바입니다.

圖書館 分野에 있어서 우리 두 나라는, 그 相互協力の 必要性和 當爲性에도 不拘하고 現實的으로 매우 不振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相對方을 向하여 배(船)를 띄워보낸 적이 없으면서, 그 배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多幸히 最近, 日本의 學術情報センター를 비롯하여 國立國會圖書館 등 國立機關들이 兩國 圖書館의 協力 增進을 爲하여 努力하고 있고, 特히 兩國의 圖書館協會가 마침내 協力·交流에 關한 公式協約을 締結함으로써 새로운 局面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자리를 함께 하고 있는 ハンゲル資料研究會와 같은 專門家の 自發的 團體가 誕生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밝은 未來를 約束하는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의 이 모임이, 또한 兩國 圖書館의 相互協力を 爲한 하나의 작은 “중이 배” 役割이라도 할 수 있게 되기를 眞心으로 바랍니다.

다시 한 번 ハンゲル資料研究會, 日本圖書館協會, 그리고 日本의 司書 同志 여러분들에게 깊이 感謝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999年 10月 13日

韓國圖書館協會 事務總長 曹元鎬

21세기의 도서관 - 일본, 한국을 연결하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과제*

하나부사 유키오(花房 征夫)
(한글자료연구회 부회장)

가깝고도 가까운 관계

오늘은, 우리와 지리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가장 관계 깊은 한국의 여러분을 맞이하여, 미래의 도서관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게 된 것을, 대단한 영광이며, 또한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일관계를 일컬어, 「가깝고도 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일본인이 한국과의 지리적 관계에 걸맞는 인식과 이해를 갖추어야한다는, 반성의 뜻으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만, 이 상황은 도서관계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의 자료, 정보에 일상적으로 접하고 있는 한글자료연구회의 멤버는, 이번에 작으나마 여러분과의 간담회를 갖고, 앞으로도 끊임 없이 한국과 일본의 자료, 정보의 세계와 교류문제 등의 의견을 교환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선반도에 관한 역사, 국제관계의 일본어문헌 목록」의 편집

먼저, 저의 문제제기입니다만, 테마는 여러분이 이번에 전학하신 “Library Fair”의 키워드 「21세기의 도서관」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의 한·일 네트워크의 구축」에 관한 화제입

니다. 저는 최근 2년간, 한일양국정보가 1997년에 발족한 「한일역사 연구진에 관한 공동위원회」의 의뢰를 받고, 90년대의 일본어간행물을 대상으로, 역사, 국제관계의 도서, 논문, 잡지기사 등의 문헌목록을 편집해 왔습니다. 그 성과는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조선반도에 관한 역사, 국제관계의 일본어문헌목록」 1997년, 1999년의 2권의 도서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90년대의 한국·조선관계의 일본어문헌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때에는, 이 2권의 「문헌목록」이 참고가 된다는 것입니다만, 동시에 데이터베이스문제를 생각하는데 있어서의 기초정보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약간, 그 내용에 접하겠습니다.

우선 채록문헌입니다만, 일본어로 쓰여진 문헌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 북조선에 관한 역사, 국제관계도서, 잡지기사 등을 편집한 것입니다. 당초부터 종합적 문헌목록으로 발전시킬 의도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관련분야의 문헌은, 사회, 정치, 경제, 산업, 문화 등에 까지 넓혀서, 한일관계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 재일한국·조선인관계문헌과 북조선 관련자료의 발굴에도 의식적으로 힘을 들여 수록했습니다.

*제1회 한·일 도서관인 세미나, 「現代 韓國·朝鮮關係 日本語 文獻の特徴とデータベース構築の課題」(번역:花房 征夫)

1만 6000여 점의 문헌

한편, 수록자료는 학술잡지 뿐만 아니라, 종합잡지, 일반잡지, 정보지, 주간지, 미니코믹지 까지 폭넓게 편집했습니다. 일반잡지, 정보지, 주간지까지 포함된 한국·조선관계의 문헌목록은 일본에서는 처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결과, 채록기사가 대폭 증대하여, 수록점수는 「98년판 문헌록」이 3,127점, 「99년판」에서는 13,349점으로, 2권 합한 총점수가 16,476점에 달했습니다.

다음으로, 문헌목록의 내용입니다만, 도서편, 잡지기사편, 색인편의 3부로 구성하고, 그 중에서 '98년 판의 수록문헌은 분류, 정리하였으나 다만, '99년 판의 논문, 잡지기사는 시간 등의 제약으로 분류작업에 착수하지 못한 채,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권말에 저자색인을 준비하여 이용촉진을 꾀하였으나, 한국집필자의 편성은 컴퓨터문제로 한글 읽기 색인은 작성을 못하고, 편의상 일본어 한자 읽기로 나열했습니다. 이 점에 대한 개선이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앞으로의 큰 문제입니다.

3,000점 가까운 한국·조선관계 문헌

이상으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는 2년간에 걸쳐 '90년대 일본어로 발표된 한국·조선관계의 도서, 논문, 잡지기사 등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문헌조사를 실시해 왔습니다만, 그런 중에 몇 가지 자료적 특징을 발견하였기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의 특징은 일본의 한국·조선관계문헌, 즉 도서 논문 잡지기사 등의 장르가 대단히 증가하여, 문헌목록의 연간규모가 2,000점에 달하는 것

입니다. 2권의 문헌목록이 전부 단기간에 작성되었다는 점, 정부간행물이 거의 채록되어 있지 않다는 점, 중요한 한국·조선관계잡지에 채록에서 빠진 기사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점, 또한 일반잡지와 주간지의 문헌조사에서도 조사가 남아있는 것 등을 생각하면, 일본의 한국에 관한 문헌규모는 연간 3,000건이라고 하는 계산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간에 일본은 한국을 제외하면, 한국·조선학문헌 규모로는, 세계제일의 발신국이라는 데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널리즘문헌의 격증과 다수의 한국·조선계집필자

제2의 특징은, 수록문헌의 대부분이 저널리즘에 속하는 자료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학술적인 자료는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저널리즘문헌은 ① 전후처리 등을 포함한 한일관계 ② 재일문제 ③ 북조선문제 등이 상당히 많고 ④ 최근에는 한일관계의 진전을 반영하여, 경제·산업관계, 문화부문의 문헌증가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⑤ 이점, 역사학 등 아카데미즘문헌은 별다른 변화가 보이지 않아, 종합잡지, 주간지 등에서의 현저한 저널리즘문헌의 증가와는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필할 것은, 집필자로서 한국·조선계 저자(재일포함)가 아주 많다는 점입니다. 문헌목록의 색인란을 찾아보면,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일이지만, 역사학, 언어학 등 많은 학술연구는 한국·조선계 학자의 연구성과를 빼고는 학문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일본의 한국·조선학 연구잡지와 학술도서는 일본인과 한국·조선(계)관계자의 공동작업이며, 미디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뒤떨어지고 있는 자료·정보의 이용환경과 데이터베이스의 출현

이러한 한국(조선)연구와 문헌증대의 현상에 비하면, 우리 한국자료연구회가 관계하고 있는 자료·정보활동은, 유감스럽지만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하나가 서지 활동의 빈약함으로, 전후기만 보더라도 「전후 일본의 조선사 문헌목록, 1945-1991, 綠蔭書房刊」의 성과를 제하면, 본격적인 서지 활동은 이제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최근 1,2년간 우리 앞에 출현하게 된 데이터베이스문제로, 이 분야의 검토는 이제부터입니다. 현재 일본에서의 한국·조선관계데이터베이스로는 아래와 같은 것을 들 수 있습니다.

- ① 국립국회도서관의 잡지기사 색인데이터베이스(현재부터 '86년까지가 이용가능하며 120만건을 커버)
- ② 학술정보센터의 데이터베이스(도서관의 목록보조작업이 중심)
- ③ 상업베이스로는 日外 어소사이트사의 Web 서비스가 간편
 - a. BOOKPLUS (쇼와기 이후부터 상업출판물을 커버, 200만건)
 - b. 저널 INDEX ('81년부터 이용가능하며, 주간지 정보지 등을 60만건 커버)
- ④ 동경대학 동양문화연구소에서는 전쟁전기의 조선문헌관련 데이터베이스 75만건의 데이터입력작업을 개시
- ⑤ 교오토대학 미즈노연구실은 「전후 일본에서의 조선사문헌목록」의 데이터베이스를 시험적으로 발신중
- ⑥ 아시아경제연구소 등 주요도서관도, 소장

도서, 기사 색인정보의 소급입력을 개시

이렇게 현재, 일본에서는 한국·조선관계의 데이터베이스가 다수 출현하여 이용되기 시작하였고, 또한 출판업계도 데이터베이스화의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각 종 데이터베이스의 검토와 평가작업은, 국경을 초월한 이용문제를 포함하여 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이점에서 곤란한 문제는 일본 한국 중국(간결체자, 구한자)의 동아시아 3국, 즉 한자문화권을 연결하는 통일한자코드의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단적인 문제가 문자둔갑으로 동아시아 3국은 국경을 초월하여 상대국의 데이터베이스를 상호활용하는 것이 차단되고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일본학술정보센터는 한글대응 등의 통일한자시스템을 2002년에 개발하려 하고 있습니다.

통일한자코드개발이 늦어지는 것은, 한국서지의 보고인 한국중앙도서관의 데이터베이스활용을 곤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일국경을 초월하여 이용되는 데이터베이스의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도서관업무의 대폭개선에도 연결되는 한자의 통일코드개발의 중요성을 재차 지적해두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물자료의 최종수단인 「한글자료의 소장목록」정비가 뒤늦어지고 있는 점을 환기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의 한글자료는 일본의 많은 도서관에 수집, 정비되어 매년 이용이 증대되고 있습니다만, 소장정보의 정비작업은 진전되고 있지 않습니다. 한글관계의 잡지, 신문, 연보 등을 대상으로 한 주요도서관을 연결한 「소장목록」편집이 기대됩니다.

한국(조선)관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

국경을 초월하여 순시 왕래하는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한일양국은 학술정보 등의 각종 데이터베이스의 상호활용과 상호활용을 위한 환경조성에 중요하겠습니다. 이번의 「문헌목록」편집작업은 당초부터 데이터베이스화를 상정하여 정보축적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본격적인 데이터베이스로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첫째, 앞서서도 말한, 데이터베이스이용을 위한 환경정비로, 통일한자코드와 한글대응한자시스템의 개발이 급선무입니다. 이점에서의 진전이 없으면, 한국문헌과 저자의 한글입력은 곤란하며, 한글 읽기에 의한 검색도 한계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데이터베이스의 국제적인 보급문제로, 일본의 데이터베이스는 세계에 개방되어, 발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서도 통일한자코드의 개발이 전제가 되겠습니다만, 동시에 각종 데이터베이스의 검색노하우 등의 경험교류가 불가결합니다. 이러한 열린 데이터베이스로서 발전된다면, 한국의 연구자와 물론, 미국 등 해외연구자의 메리트는 상당히 클 것입니다.

셋째로, 한국인성명 등에 많이 보이는 난독한자(비JIS규격)를 처리하는 문제로, 학술문헌이라는 성격상, 공백인 채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난독한자 처리의 데이터베이스화향한 본격적인 연구와 소프트개발이 국경을 초월하여 요구되고 있습니다.

넷째는 각종 데이터베이스의 각종 검토와 평가작업의 필요성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다수경과함으로써, 많은 한국·조선관계 데이터베

이스의 내용이 충실해지고, 특색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장래에 매우 이용이 간편한 「한국·조선관계데이터베이스」를 탄생시키는 계기가 되리라고도 생각합니다.

중요한 한일 도서관원의 교류

이를 위해서도 한글자료의 수집, 정비, 제공업무와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에 종사하는 도서관원과 서처(Searcher)의 자질향상과 양성이 중요합니다. 21세기의 한국·조선관계의 도서관원의 새로운 임무는, 일본의 데이터베이스는 물론이고, 한국 구미의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하는 일입니다. 데이터베이스의 검색 노하우를 고도로 구사하는 능력이 없어서는, 21세기에 살아남을 수 있는 도서관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입니다.

현재, 한국과 일본의 도서관교류는 막 시작된 것에 불과합니다만, 자료·정보규모의 현상, 다양한 수요내용, 나아가서는 최고지도자로부터 작은 서클레벨로 까지 펼쳐질 다양한 인적교류, 학문·연구분야의 연구협력, 유학생 지원문제 등의 상황을 생각하면, 우리들 도서관원도 현재의 위치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친목회는 대단히 유용한 것으로, 앞으로의 교류축진의 계기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내년은, 우리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도서관을 둘러싼 문제와 미래의 양국 과제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韓國 圖書館協力の 必要性和 向後 課題*

金 泰 承

(京畿大學校 文獻情報學科 教授)

1. 序言

日本과 韓國은 地理的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 이면서 서로 적지 않은 影響을 미치고 있는 重要한 相對國이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近世에 들어와서부터 두 나라 關係는 매우 緊密해졌으며 때로는 不幸한 過去歷史도 있었으나, 이제 새로운 千年을 앞두고 두 나라 사이의 相互理解와 協력이 더욱 더 要求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趨勢를 反映하여 最近 들어 오랫동안 묶여있던 두 나라 사이의 文化部門의 實質的 開放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두 나라의 緊密한 協力を 豫想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時點에 日本과 韓國의 圖書館 分野의 協력도 그 重要性이 增大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圖書館은 21世紀 知識情報時代의 가장 核心의인 情報提供 機關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며, 圖書館이 서비스하는 對象領域도 該當地域을 넘어 國家, 더 넓게는 全世界 사람들을 對象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日本의 한글資料研究會 멤버들과 韓國 圖書館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韓日 圖書館間 協력에 대하여 論議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아주 時宜適切하다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서 저의 意見を 말할 機會를 갖게 된 것을 매우 榮光스럽게 생각합니다.

2. 韓日 圖書館 協力の 必要性和 當爲性

日本과 韓國은 古代부터 地理的 接近性으로 인하여 必然的으로 密接한 關係를 맺어 왔습니다. 韓國은 大陸의 끝에 位置해 있으면서 바다 건너 日本에 大陸의 文物과 思想을 傳達하는 役割을 해 왔습니다. 日本의 立場에서 보면 大陸과 連結하기 위하여 韓國을 거쳐가지 않을 수 없었겠지요. 그러다 보니 두 나라 사이의 關係는 적지 않은 葛藤이 表出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두 나라 사이의 關係를 優越感和 劣等感を 同時에 가지는 關係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古代文化 傳播는 韓國에 優越感を, 同時에 日本에는 劣等感を 심어줍니다만 明治 以後의 近代文化의 國家였던 日本의 韓國 植民地 支配는 反對로 日本에는 優越感を, 韓國에는 劣等感を 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事情을 바탕으로 그 동안 兩國의 歷史는 대체로 자신들의 恥部는 숨기고 優越感を 드러내는 데 置重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植民時代를 지난 지금의 두 나라는 서로 過去史를 넘어 相互 健實한 理解와 繁榮의 同伴者로서의 役割을 定立하고 相互 協助하면서 새로운 千年의 아시아 時代를 열어 가는 同志가 되고 있습니다.

圖書館 側面에서 볼 때, 現在 두 나라의 圖書館에는 서로 相對國의 資料들을 相當數 所藏하

*[제1회 한·일 도서관인 세미나] 발표논문.

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러한 資料의 所在가 잘 알려져 있지 않았고 相對國에 제대로 公開되지도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最近 韓國의 서울大學校 圖書館이 所藏하고 있는 日本植民地 時代 資料를 日本 學者들에게 公開한 것이 日本에서 큰 話題가 되었다는 消息을 접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두 나라 圖書館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山積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圖書館이 所藏하고 있는 資料를 把握하고 目錄을 作成하고 이를 많은 사람들이 利用할 수 있도록 積極 公開하는 등의 活動을 우리 두 나라 圖書館인들이 堪當해야 할 責任으로 設定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圖書館인들의 活動이 두 나라 사이의 協力과 紐帶의 基盤을 더욱 鞏固하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韓日 두 나라 圖書館과 圖書館인들의 協力과 實際의인 活動이 切實하게 要求된다고 하겠습니다.

3. 지금까지의 韓日 圖書館 交流 現況

現在 日本과 韓國間의 協力は 政治, 經濟 分野를 넘어 大衆文化와 學術分野까지로 넓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직도 微微한 水準이기는 하지만 圖書館間의 協력이 間間이 있어 왔습니다.

그 동안의 韓日 圖書館間 交流는 주로 資料 部門을 爲主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資料 爲主의 交流도 體系的이고 長期的인 計劃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주로 個人 또는 個個 圖書館의 必要에 따라 斷片的이고 一回의인 交流에 그쳐왔던 것이 事實입니다.

人的 交流도 頻繁하지는 않았지만 間歇的으로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特記할만한 事例

는, 日本의 學術情報센터(NACSIS)가 “海外에 있어서의 日本情報의 需要와 供給에 關한 研究” 등, 巨大한 國際共同研究課題를 10年以上 運營해 오면서, 그 過程에서 約 20名에 達하는 韓國의 司書와 學者들을 그 研究에 招聘, 參與케 함으로써 兩國의 學術情報 發展에 크게 寄與하고 있고, 또한 日本의 國際交流基金(Japan Foundation)을 통해 적지 않은 數의 韓國 司書들이 日本에서 研修를 가졌습니다. 그 外의 경우는 대체로 一時的 圖書館 相互間 訪問에 따른 交流나 個人的 次元의 研修 등이 주된 人的 交流 方式이었습니다. 그러나 最近 들어서는 두 나라 圖書館인들의 往來와 交流가 頻繁해지고 있어 아주 肯定的인 效果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특히 昨年과 올해 韓國의 圖書館大會에 日本 圖書館界의 指導級 人士께서 參席하시고 特別講演 등을 함으로써 韓日 圖書館 協력을 더욱 鞏固히 하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이번처럼 韓國의 圖書館인들이 日本을 訪問하여 오늘과 같은 만남과 討論의 場이 마련된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圖書館間의 協력은 아직까지 實驗的이거나 個別的, 또는 局地的 次元의 交流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동안 記憶할 만한 交流의 例로는 日本의 杉竝 圖書館과 韓國의 西大門圖書館이 姊妹結緣을 맺은 것이나 日本 富山縣 等 北陸地區 圖書館들과 韓國의 江原道 圖書館들과의 相互交流, 日本 東京都立圖書館과 韓國 正讀圖書館間의 關係 設定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가 아주 微微해서 오랜 歷史的 關係를 가진 國家間의 圖書館 協力이라고 하기에는 不足한 점이 아직 많습니다.

4. 向後 活性化 方案

이제 두 나라 圖書館과 圖書館人들의 緊密한 協力과 交流가 要請되는 時代를 맞아, 또한 韓日 두 나라의 向後 同伴者의 關係 強化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次元에서도 보다 積極的이고 體系의인 協力方案을 마련하고 持續的으로 協力과 交流를 強化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優先 最近의 몇 가지 效果的인 努力들이 試圖되고 있는 것이 成果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봅니다.

優先 日本에서 오늘 이 모임을 主催하신 한글 資料研究會의 誕生과 一連의 努力이 結實을 맺도록 協力해야 합니다. 事實 한글 資料研究會의 誕生과 活動은 우리 韓國의 圖書館人들에게도 큰 感銘을 주었습니다. 研究會의 努力이 앞으로 日本에서의 韓國資料 利用 活性化에 크게 寄與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韓國에서도 이와 같이 日本資料研究會(假稱) 같은 한글 資料研究會의 카운터 파트너를 만드는 일이 時急하다고 생각합니다. 韓國에서도 日本資料를 다루고 研究하는 분들이 많으니 곧 즐거운 消息이 들려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韓國에서도 日本의 NACSIS와 步調를 같이할 만한 計劃的인 프로젝트를 運營할 事業主體가 登場하여, 兩機關이 協力하여 지금까지의 NACSIS의 成果를 더욱 發展시켜 나갈 必要가 切實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最近 들어 더욱 強化되고 있는 韓國 國立中央圖書館과 日本國立國會圖書館과의 人的交流가 擴大되어야 합니다. 두 圖書館은 兩國의 代表圖書館으로서의 指導力과 責任을 함께 가지고 있는 바, 兩機關의 協力は 곧 두 나라 圖書館 協力の 核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무엇보다 重要한 것은 韓國圖書館協會와 日本圖書館協會間와의 交流擴大가 必要합니다. 最近 두 機關은 相互 交流·協力에 대한 協定을 맺었습니다. 協定의 精神에 따라서 持續的으로 그 活動을 擴大해 나가기를 期待합니다. 昨年과 올해 두 協會間의 親密한 相互訪問과 激勵, 交流는 매우 肯定的이라고 評價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協會間 協力과 交流가 所屬國의 모든 圖書館과 圖書館人들에게까지 實際的으로 擴大될 수 있기를 希望합니다.

本人이 생각하기로는 두 나라 圖書館 協力에서의 最優先 課題는 무엇보다도 圖書館人들間의 理解와 親分을 높이는 것입니다. 모든 일과 歷史는 사람이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韓日 두 나라의 圖書館 交流·協력이 역시 사람의 일인지라 優先的으로 서로 친한 사람이 많이 생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지금은 부지런히 서로 連絡하고 만나는 일이 重要하다고 봅니다. 오늘의 이 세미나가 바로 이러한 最優先 課題의 核心的인 事例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자리는 向後 두 나라 圖書館 交流·協力の 새로운 轉機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5. 結言 - 課題 생각하기

이제 이야기를 磨勘하면서 다시 한번 두 나라의 圖書館間 交流·協력을 強化하고 效果的으로 推進하기 위해서 풀어가야 할 몇 가지 課題를 整理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단단한 基礎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서도 言及한 바와 같이 日本의 한글 資料研究會의 韓國側 카운터 파트너를 마련하는 일이 꼭 必要합니다. 또한 日本의 NACSIS, NDL, 韓國의 國立中央圖書館 등 兩

國의 指導的 機關들의 交流活動이 더욱 強化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兩國 圖書館協會의 積極的 努力이 要求된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두 協會가 매우 親密한 關係이며 相互 交流·協力意志가 確固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期待가 매우 큽니다.

그러나 兩國의 交流·協력이 擴大될수록 交流·協力の 普遍的이고, 客觀的인 窓口가 必要하다는 점을 指摘하고자 합니다. 자칫 巨視的 次元에서의 立場을 놓치고 部分的이거나 枝葉的인 問題로 인해 交流·協력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本人 생각으로는 역시 兩國의 代表的이고 指導的 民間團體인 圖書館協會가 向後 兩國의 圖書館間 交流·協力の 一次的 窓口役割을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本人은 오늘 이 자리에서 韓日 圖書館間 協力

의 必要性和 課題에 대해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두 나라 圖書館人들의 交流·協력에 큰 成果가 있을 것이라고 確信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같이 重要的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더 없는 榮光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같은 생각이시리라 믿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日本의 한글資料研究會 멤버 여러분들과 日本圖書館協會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 주신 圖書館人 여러분께 깊은 感謝와 함께 同僚愛를 表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韓國에서 온 우리 圖書館人 여러분들께 앞으로 韓日 兩國 圖書館間 交流·協力の 核心的 役割을 맡아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것으로 本人의 發表를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99 신간

인터넷과 정보활용

유 재 옥 저

373쪽/4×6배판
정가/ 15,000원
회원보급가 12,000
ISBN 89-7678-042-6

〈주요목차〉

인터넷 개요/인터넷 접속/인터넷 서비스/전자메일(e-mail)/월드와이드 웹(WWW)/네스케이프 커뮤니케이터/유즈넷 서비스/웹 검색기법/검색엔진/탐색 대상별 검색엔진/태그를 이용한 홈페이지 작성/자바(JAVA)추천 웹사이트

구입문의: 한국도서관협회 사무국 전화 02-535-4868 팩스 02-535-5616